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3.10

북한 : 교회는 살아있다

순교자의 소리 바이블 댄스 테라피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북한, 교회는 살아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0년, 북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 독립 단체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The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는 북한 내부에 성경책을 눈으로 직접 본 주민이 거의 없다고 보고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자료에 따르면 그 수치는 약 8%까지 급증했고, 이후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직접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통일연구원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의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10%에서 30%, 즉 200만에서 6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이 해외 라디오 방송을 불법 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순교자의 소리가 매일 5회씩 송출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이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북한에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소리 북한 사역의 최근 소식이 더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QR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SCAN ME!

탈북민을 위한 바이블 댄스 테라피

◀ 탈북민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블 댄스 테라피 개별 지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숙 폴리 대표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자체 운영 중인 '유유 선교 학교'와 '유티 제자 훈련 학교'의 탈북민들을 위해 최근 '바이블 댄스 테라피Bible Dance Therapy' 수업을 시작했다.

바이블 댄스 테라피는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제들 중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첫째, 북한 사람은 한국 기독교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식으로 기독교에 접근하려면 한국 문화와 언어적 기반이 필요한데, 북한 사람에겐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 성경은 보통의 한국인을 위해 평범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사람은 한국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에게 익숙한 북한 사회는 사실상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가까운 이웃들과 종종 함께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 일상을 뜻하는데, 반면 현대 남한 사람들은 선호하는 대상, 편리함, 사생활을 기본으로 사회생활을 형성하는 경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셋째, 많은 북한 사람이 트라우마와 우울증 및 그와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 정착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항정신병 치료제, 항우울제, 수면제 처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 이러한 약들은 정신적 문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 다수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약에 의존하면서 내성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바로 '바이블 댄스 테라피'이다.

'바이블 댄스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의 첫 단어는 '성경Bible'이다. 순교자의 소리는 존 로스John Ross 성경을 번역하는 탈북민들에게, 평범한 조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조선의 언어로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사람들이 당시의 북한 지역 주민들이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성경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들은 북한 지하교회의 신앙과 실천이 더 역사가 깊고 잘 뿌리내린 한국의 기독교 형태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그들에게 매우 큰 격려가 된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무용Dance'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음악과 넓은 공간을 내어주면,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즐겨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 그들의 삶에는 춤이 있었다. 한국에서 춤이나 무용은 댄스 스튜디오나 동호회에 귀속된 것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일상적 활동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북한 사람에게 춤 출 기회와 공간을 준다면, 그들이 북한에서 누렸던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마지막 단어는 '테라피Theraphy', 즉 치유이다.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지금껏 효과를 얻지 못한 북한 사람들의 트라우마, 우울증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 해결에 댄스 테라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탈북민 학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각 학생에게 필요한 개별 레슨의 양이 너무 많아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무용의 기본 동작 몇 가지를 가르치고, 이후 개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 자신만의 무용을 창작하며 트라우마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다.

▲ 바이블 댄스 테라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치유를 경험한 탈북민 김 선생

이 수업에 참여 중인 탈북민 김 선생(가명)은 1990년대 북한 '고난의 행군' 때, 인육을 먹는 사람들에게 어린 자녀를 잃고 말았다. 그 기억 때문에 아무리 독한 약을 써도 잠을 자지 못했던 김 선생은 친구의 권유로 바이블 댄스 테라피 수업에 참여했다. 김 선생은 무용 실력이 매우 뛰어났고, 학생들 모두 김 선생의 무용을 가장 좋아했다. 김 선생은 약으로 얻지 못했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바이블 댄스 테라피에 참여하면서 탈북민 학생들은 남한 문화를 좇지 않고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수업에 참여 중인 탈북민 조 선생(가명)은 바이블 댄스 테라피를 통해 성경이 처음 들어온 곳이 남한이 아닌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역사가 남한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바이블 댄스 테라피를 통해 그 생각이 깨졌어요. 이 수업을 받으면서 로버트 토머스Robert Thomas 선교사 평양 인근에서 순교한 최초의 한국 선교사 중 한 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경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과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조 선생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설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토머스 선교사 같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통해 많은 북한 여성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지금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학생들은 내년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여러모로 필요하다. 이러한 치유 사역이 탈북민들에게 절실하다는 사실로 인해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이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 **에리트레아** 해외로 피신한 기독교 수감자들의 가족을 위해	2 **키르기스스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사역할 수 있도록	3 개천절 **탄자니아** 순교한 목회자의 아내, G사모가 시편 23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4 **말리** 이슬람교도들의 탄압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도록	5 **알제리** 베르베르족 기독교인들이 아랍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8 **우간다** 시골, 핍박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성경 인쇄와 오디오 성경 배포를 위해	9 한글날 **코모로** 오디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10 **네팔** 네팔에서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합법화 되기를	11 **라오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12 **카타르** 예배모임에 갈 때 안전을 주의해야 하는 카타르 기독교인을 위해
15 **인도네시아** 최전방 사역자들이 시골주민들에게 성경을 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16 **이라크** 성령께서 계속 무슬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기를	17 **모로코** 요 17:20-26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도록	18 **아프가니스탄** 기독교를 제한하는 다른 이웃 국가들로 내쫓긴 아프간 성도들을 위해	19 **쿠바** 모든 쿠바 성도들이 올해 안에 개인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22 **지부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시기를	23 **투르크메니스탄** 사역자들이 창의적인 무슬림 전도법을 찾을 수 있도록	24 **리비아** 교회를 폐쇄하고 철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산되도록	25 **예멘** 내전 중에도 신실한 증인이 되고자 현지에 남은 최전방 사역자들을 위해	26 **요르단** 일자리와 평판, 재산을 모두 잃은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29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커지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30 **소말리아** 위험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호해주시기를	31 **수단** 새신자들이 양육받을 때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지도록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순교자의 소리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금요일	토요일
6	**7**
미얀마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교회를 계속 성장시켜주시기를	콜롬비아 위험한 '레드존' 지역에 필요한 사역자를 세워주시기를
13	**14**
말레이시아 말레이족 성도들이 올해 안에 모국어 개인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카자흐족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도록
20	**21**
방글라데시 무슬림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다가가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인도 가족과 정부의 핍박에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27	**28**
모잠비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모든 것을 잃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레바논 새 정부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역 공동체의 빛으로 여기도록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북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순교자의 소리 북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하늘 및 육로와 해로를 통한 북한 내부 **성경** 배포
- 매일 5번씩 단파 라디오를 통한 북한 내 **성경** 방송 송출
- 탈북민 대상 **바이블**(성경) 댄스 테라피 수업
- 독자판 존 로스 **성경** 번역
-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성매매로 외국에 팔려온 북한 여성 및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성경** 공부
-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대상 **성경** 지원
- 북한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 **성경책**, 전자 성경 및 오디오 **성경** 전달

우리와 북한 사람들 사이에 이뤄지는 모든 소통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북한 사역에 지원하신 모든 헌금은 성경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기 원하시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일시 후원도 좋고, 매월 정기 후원도 좋습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북한사역'**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북한사역'**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scan me!

북한_최악의 밀수품

밀수꾼으로 살던 북한 주민,
두려움 속에 만난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을 맛보다

▲ 쌀자루에 성경을 숨겨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이 선생(재연 사진)

이 선생(가명)은 생계를 위해 밀수업에 뛰어들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재난 수준의 홍수를 연달아 겪으면서 농작물과 농토가 거의 다 황폐화되었다.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자립 사상을 고수함에 따라 수입이나 외국인 투자, 국제 사회 원조가 제한되면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결국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일명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이 극심한 기근의 시기 몇 년 동안, 군인이나 노동당 간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준법 시민으로 남아 배급을 기다리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밀수 같이 불법 행위를 통해 살아남을 길을 찾든지 선택해야 했다.

살아남아 가족을 부양하려는 절박함 속에서 이 선생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 밀수꾼이 된 것이다.

하지만 밀수는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양측 국경 수비대나 세관원들의 감시는 때로 뇌물을 써서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있어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발각될 경우 엄청난 벌금부터 노동수용소 수감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가혹하고 다양했다. 게다가 밀수를 위해 강을 건너는 것, 거쳐야 할 지형 및 날씨, 중국의 악덕 물품 공급업자들이나 북한 내 모든 이웃 가운데 숨어있을 정부의 정보원들까지 위험 요소는 도처에 깔려 있었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었던 이 선생은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을 넘어 자신을 도와줄 친척들이 있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 선생은 한국 기독교인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들의 주일 예배에도 초대받았다.

그 교회는 이 선생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가족에게 가져갈 수 있게 쌀을 나눠주고 있었다. 밀수품 확보를 위해 중국에 갈 때마다 이 선생은 그 교회를 찾아갔다. 기독교에 관해 배우면서 이 선생은 점차 더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선생은 제자 훈련까지 받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법을 배워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이 선생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성경을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극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성경은 북한 내에서 절대 금지된 품목이었다. 따라서 북한 내로 성경을 밀반입하다 잡힌다는 것은 체포와 투옥뿐 아니라 처형까지 갈 수도 있는 확실한 죄목이었다.

북한에서 밀수 일을 하다가 탈북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또 다른 탈북민 박 선생(가명)은 성경 밀반입이 적발될 시 직면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동료 밀수꾼들에게 들었던 경고를 들려주었다. 성경을 갖고 국경을 넘다 붙잡힌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뇌물을 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그는 강제수용소 수감 판결을 받았다. 환경이 아주 열악해 수감자 40%가 아사한다는 수용소였다.

북한에는 종교나 성경에 반대하는 선전이 만연해 있으므로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하며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다. 한 북한 출신 기독교인은 해외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중 성경을 처음 받았던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란 걸 처음 받았을 때는 너무 두렵고 괴로웠어요. 결국 악마의 손아귀에 잡히고 말았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나에게 성경을 준 사람을 당국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을 밀반입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마다 이 선생은 배낭에 쌀을 가득 채우면서 그 속에 성경책 한 권을 묻었고, 그렇게 무사히 국경을 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집 안에는 성경이 점점 쌓여갔다. 자신과 성경을 모두 지키기 위해 이 선생은 성경을 비닐에 싸서 마당에 묻기로 했다.

이 선생은 이 귀중하고도 위험한 금지품들을 오랫동안 나눠주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식량을 얻으러 찾아온 믿을 만한 가족들에게는 그간 중국을 왕래하며 배웠던 예수 그

▲ 캠핑장에서 연습 중인 바이블 댄스 테라피 참여 탈북민 학생들

▲ 이 선생은 순교자의 소리 유티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 중인 유티/유유학교 탈북민 학생들

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법을 어긴 이웃을 신고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선생은 식량을 나눠줄 때도 이웃들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게 몇 걸음만 걸으면 닿을 곳에 성경을 숨겨 놓은 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찾아 성경을 주기 위해 이 선생은 인내하며 기다렸다.

시간이 흘러 이 선생은 결국 가족들과 탈북하여 한국에 왔다. 이 선생은 북한 집 마당에 묻어 둔 그 성경책들이 아직 그곳에 있을 것이라 믿으면서, 복음의 은혜와 소망을 갈망하는 또 다른 북한 주민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생이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지는 못했지만, 이 선생을 비롯한 많은 북한 사람이 진리에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있다. 처음 성경을 받고 겁에 질렸던 어떤 북한 기독교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만일 여기서 죽게 된다면, 믿음 때문에 천국이란 곳에 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니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로스 성경, 140년 만에 다시 북한에 가다

1882년, 조선인 몇 명이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을 중국 무크덴Moukden오늘날 선양에서 지금의 북한 지역으로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다.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가 조선인들과 함께 번역한 누가복음서였다. 그때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들은 순교자의 소리가 펴낸 『21세기 존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을 통해 그때와 동일한 과업을 이루어가고 있다.

▲ 존 로스 성경을 번역 중인 유유 및 유티 학교의 탈북민 학생들

올여름 순교자의 소리 『21세기 존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이 상당수 북한에 반입되어 지하교인들 손에 무사히 전달되었으며, 성경을 갖게 된 북한 지하교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다.

존 로스 성경을 '21세기 독자판'으로 번역하는 사역은 탈북민 대상의 '유유UU, Underground University' 선교 훈련 학교와 '유티UT, Underground Technology' 제자 훈련 학교의 정식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었다.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인 존 로스 성경은 원래 조선 북서부 출신 조선인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방언이나 어휘의 경우 오늘날 한국의 전문 번역가들보다 평범한 북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존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은 순교자의 소리가 앞으로 출간할 신약성경 3권 중 첫 번째 성경이다.

'숨겨로 드러나는' 북한 기독교 역사의 증거

믿을 수 없겠지만, 북한 TV에는 십자가가 자주 등장한다. 일부 TV 프로그램들이 십자가나 종교 물품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외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배우며, 많은 북한 영화에도 외국인 선교사들이 등장한다. 물론 결코 긍정적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 모든 이야기는 북한 정부의 관점에서 전개되며, 김일성이 기독교와 '외국 침략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북한을 구해냈는지 보여주는 도구로만 쓰일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기독교를 가장 맹렬히 박해하는 북한 정부까지 사용하셔서 북한 기독교 역사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순교자 차덕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차덕순의 이야기는 북한 정부가 어떻게 종교인들을 찾아내 처벌하여 침묵시켜야 하는지 보위부 요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영상을 통해 보존되었다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 영상을 통해 북한 정부가 목적한 바는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상을 판독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한국으로 탈출하는 대신 북한으로 돌아갔던, 담대하고 용기 있는 북한의 복음전도자 차덕순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있었다.

▲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 TV 프로그램의 도입부 화면. 북한 국영 TV에는 십자가를 비롯한 기독교 관련 물품들이 종종 등장한다.

10월에는 순교자의 소리 도서와 영상을 통해 북한사역에 대해 배워보세요!

「영웅의 여정」

현숙폴리 대표와 탈북민 10인의 간증
"영웅은 아직 당신 안에 있다!"

현숙 폴리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기독교에 가장 적대적인 북한에서
3대에 걸쳐 신앙을 지켜 온 배씨 가족의 이야기

에릭 폴리 10,000원

복음 통일을 위한 첫걸음, 조선어 성경 읽기!

21C 존 로스 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30,000원

「조선어/쉬운 영어 성경」 (창세기/신약)
15,000원

영상으로 만나는 북한 사역과 북한 교회!

"그들의 목소리, 상철"

북한 지하교인과
한충렬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서울과 대전 사무실에서 북한사역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하세요!

서울사무실

매일 5개 채널로 복음을 전하는 북한 라디오 방송 녹음

(방송 녹음 사역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 일부로, 기본단계를 거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및 문의 안내: 010-3151-2065

대전사무실

조선어 성경이 담긴 SD 카드 복사,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문 편집, 매달 진행되는 탈북민 학생들의 존 로스 성경 번역 지원

(재정 후원으로도 북한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및 문의 안내: 010-8844-2065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의 저서 및 전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웜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웜브란트/에릭 폴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웜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지하교회는 하나님께만 플러그를 꽂은 교회이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설교할지 정부가 결정하려 할 때
우리는 먼저 지하교회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 _정○○ 집사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만주선교방법론」
각 10,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21 – 콥트 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
10,000원

「이슬람이냐 죽음이냐」
10,000원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